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상상하기

April, 2017 | 김정아 기자

page 1 of 4

INTERVIEW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상상하기

안규철

작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인터뷰 김정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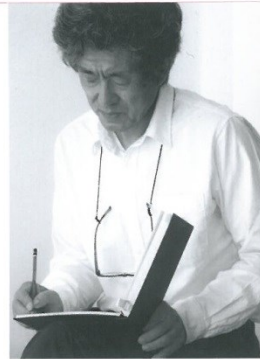


사진: 박정훈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우선 작가로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간접화법으로 세상의 구조와 인식의 체계를 비트는 작품 세계를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근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개념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작품 구상에 있어서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보다 관객으로 하여금 질문을 유도하게 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소통은 언제나 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시리즈 전시는 상업 갤러리와 다르게 다양한 일반 대중들과 직접 만나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시는 일

최근 국제갤러리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에서 선보인 <LIFE> 작품 속 예술(art)과 생(life)은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수레바퀴 같은 두 개념 속에서 선생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시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명확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인생에 예술이 더해져도 인생이고, 없어도 인생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술이 더해진 인생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예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동물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백날 말해봐야 예술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냉소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없겠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뒤늦게 밝혀졌지만, 애초부터 어긋나 있었던 일들이었죠. 저는 그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칫 정신을 놓으면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사회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시국에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 자체가 계속 이런 식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예술로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왜곡되고 변형된 상태의 오브제들에게 아무런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들은 계속 다른 것이 되려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일종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셈이죠.

방적인 소비자로서의 관객이 아니라 함께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참여자로서의 관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리워하는 것을 메모지에 쓴 <기억의 벽>의 경우 수만 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것이 별만 다르지 않고, 그 그리움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구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홉마리의 금붕어>의 경우도 개인이 어떻게 만나서 공동체를 이룰까란 생각에서 출발했던 작품이고요. 오래된 기억인데, 1986년인가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순서가 오지 않아서 방송에 나가지 못한 분들이 사연을 적어서 여의도 사육에 다닥다닥 붙어서 벽이 만들어졌죠. 그것이야말로 어떤 미술 작품보다도 정확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기념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노란 리본의 형태들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양식으로 옮겨왔고요.

오랜만에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신 건데, 중견작가로서 한국 미술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주제님은 얘기지만, 미술계 안에서 제가 어떤 일에 기여해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확실히 커졌어요. 여태 상업 갤러리 후원 없이 그냥 학교 선생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을 거의 다 했

고, 또 운도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생산되는데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선생이고 어쩌다보니 좋은 미술관에서 전시도 했는데, 제자들에게 '나처럼 버텨'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 같은 작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은 있어요. 한국 미술시장은 편협한데, 그것은 갤러리 탓이 아니라 컬렉터의 취향이 편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미술작품에 기대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요. 거의 평생 제대로 된 컬렉터도 없고, 작품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저 같은 작가의 작품이 갤러리를 통해 국내외에서 유통되면, 작가 층과 컬렉터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99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 한예중) 미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예술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에 몸담고 계신 교육자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초대 교수진들과 '어떻게 하면 미술교육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시작했어요. 대체로 주류 미술계에 편승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각자 출신학교와 유학한 나라가 다 다른 마지 외인구단 같은 집단이었죠. 우리가 직접 교과과정을 만들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일궜은 학교라 타 학교 선생들이 생각하기 힘든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제 예술세계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으로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예중은 여섯 개의 분과가 모여 있는 예술학교인데, 음악이나 무용은 재학생일 때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미술은 늦긴 했죠. 규모도 작고 늦게 생긴 젊은 학교지만, 심사를 다녀보면 서울대, 홍대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도 이제는 꼭 있더라고요. 저희가 펼쳐왔던 교육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졸업 전시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지켜보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개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다시 초창기 과정을 돌아보며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설립 초기부터 급속히 변화하는 미술계 환경에 맞는 선진적 미술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현재는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이 많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원만의 독자적인 수업방식이 있다면요?

1, 2학년은 그 뿌리를 배우 하우스 교육에 두고 있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미국의 학부 과정을 한국식에 맞게 개발한 것이고요. 집중적으로 손의 노동을 요하는데 정작 수업은 밤새 해온 과제를 설명하고 크리티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교육과는 차별되는 지점이고요. 결국 미술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말이 많고 되바라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웃음). 3, 4학년은 유럽식으로 지도교수의 스튜디오에서 본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개별 면담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초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지도교수를 정하게 했어요.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작가들이 스튜디오 수업을 맡게 되는데, 전인으로서 불편한 경쟁이 아닐 수 없죠. 선생들도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으니까요. 미술원 교육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작업에 던지는 질문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미술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한예중의 설립 배경에는 기존 서울대나 홍대의 교육으로는 국제적인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도 있었습니다. 두 학교와 다른 방식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그만큼 미술원 교수진들의 사명감이 강한 편이에요. 실험적, 개방적, 친취적 모델을 만

들어 내려면 여러 가치를 갖춰야 하는데,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우선 저를 비롯해 비슷한 연배의 교수진들이 청년을 맞아 한꺼번에 빠져 버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5~6년이 학교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요. 처음 학교 설립할 때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기며 새로운 진영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공미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작년 6월 '서울은 미술관' 전문단을 출범했고, 선생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세훈 시장 임기 때 서울 시내 곳곳에 공공미술 사업을 꽤 열심히 진행했었어요. 그 이후 한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에 재개된 건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서 소집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금년 계획을 발표

하는 자리에서 코멘트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방향성 없는 상태로 욕심만 내서 사업을 벌이면 되겠냐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덜컥 단장을 맡게 됐죠.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미술 사업의 기획 단계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심포지엄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선언문 비슷한 것을 읽게 했어요. '예술은 시민에게 베푸는 어떤 특혜가 아니고, 예술의 이름으로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방해하면 안 되며, 도시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고 자원을 최대한 아낀다'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사실 작업에만 몰두하고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이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 임기가 2년인데, 공익 근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어요.

서울의 공공미술 현주소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해서 매년 300점씩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미술 작품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몇 퍼

센트를 미술 작품에 쓰라는 것인데요, 사실 큰 미술 사업이지만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러는 좋은 작품도 있는데,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들도 있어서 그 개선이 가장 큰 골

칫거리예요. 업계에 잘못 굳어진 관행에 의해 오랫동안 손댈 수 없었던 공공미술 심의위원 제도를 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순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심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 작가들도 제한적인데, 미술계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번거롭고 원치 않는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아주 젊은 작가들은 진입 장벽이 있고요. 디자인재단에서 문래, 성수, 을지로 일대와 같은 공장 지대에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젊은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있어요. 25개 정도의 프로젝트로 만들었고, 금년에 5개의 작품이 세워질 예정이에요.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방식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공공미술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예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미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공공미술이 없다고 해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술이 없는 도시를 상상

해 보면, 그게 감옥과 뭐가 다를까요? 직장과 집을 꼼짝없이 왕복하는 창살 없는 감옥일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예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작가 인생은 결국 '마라톤'이라는 말을 하곤 해요. 결국 오래 버티면서 자기만의 베이스를 다져 나가야만 한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걱정, 비판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대 사람들이 백남준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환기하는 데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예술은 당장 집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것과는 달라요.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포착과 환기가 예술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부터
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과정 졸업전시회 전경 ©문규화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현장 ©홍남명